동아시아 차문화, 통도사에서 만난다

10월 1~2일, 제3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다교류전

한중일 차인들 모여 제다법 시연
성파 스님, 선차 전통 계승 의지
자장 율사 이은 차공양 전통
학술대회로 '차덕론' 담론 확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오는 10월 1~2일 '제3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3국이 각국의 전통 제다법을 시연하고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자리로, 통도사의 선차(禪茶) 전통을 잇고 현대적 차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0월 1일 오전 10시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 제다실에서 열리는 교류전에는 한·중·일 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은 통도사 차문화대학원팀이 통도사 차밭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중국은 호남사범대학 진소법 교수와 절강공상대학 이행철 교수가 항주의 명차 용정차를 선보인다. 일본은 시즈오카현 마쓰이엔 대표 마쓰이 에쓰로, 쓰시마 오이시 농원 대표 오이시 유지로 등 전문가 5명이 녹차와 홍차를 소개한다. 덖음·증제·발효 등 제다법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는 교류전은 세 나라 차문화의 뿌리와 흐름을 조망하는 현장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선차 문화를 계승하고 차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통도사에 차밭을 조성했다. 스님은 "수행과 의식에 필요한 차는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1989년 주지 소임을 마친 후 3000여 평의 차밭을 일궜다. 이후 직접 제다한 햇차를 부처님께 헌공하는 의식을 이어가며 불가의 차문화를 알리고 있다.

통도사는 창건 때부터 차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차를 함께 들여왔고, 통도사 금강계단 주변에서 직접 제다해 부처님께 올렸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1~2일 '제3회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오른쪽)가 직접 조성한 통도사 차밭을 둘러보는 모습.

〈통도사사적기〉에는 자장 율사가 '차의 향기'를 뜻하는 화향 제자를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차공양의 전통을 보여 준다. 고려 시대 통도사는 동을산 다소촌을 운영해 대량의 차를 생산, 부처님께 공양하고 교화에 활용했으며 이는 한국 사찰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기록돼 있다.

국제차문화학술대회는 10월 2일 오후 1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다. '통도사 한·중·일 차의 덕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정민 교수(한양대)가 '한국 차론상의 차덕론', 진소법 교수(호남사범대학)가 '중국 차덕의 변천사 연구', 노성환 명예교수(울산대)가 '일본 차덕의 성격과 기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노경희 교수(울산대), 이행철 교수(절강공상대학), 이병인 명예교수(부산대)가 나선다.

통도사는 "올해 학술대회는 차를 매개로 한·중·일이 학문적·문화적 담론을 확장하는 자리"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자료집과 연구서로 간행해 차문화 보급과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3주년 부산불교환경연대 "생명살림 앞장"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방장 정여 대종사 후원금 전달
10월 22일, 녹색불교아카데미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를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기념사에서 과거 범어사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산을 돌본 일화를 언급하며 "석탄과 석유,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에게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연을 아끼고 보존해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나와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연결돼 있다는 뜻"이라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함께 녹색불교환경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불교계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나와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며, 나무와 숲, 새와 강물이 모두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다"며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여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환경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과 부민노인복지관이 감사장을, 김경옥 활동가가 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김화선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 운영위원장, 배우 장명갑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태게 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후원음악회에서는 '요술당나귀', 여여한중창단, 바리톤 정성민이 무대에 올라 평화와 생명살림의 노래를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반야선원에서 '제4회 부산녹색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 시대에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기획됐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등록금은 6만원이다. 010-2134-880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 가족문화축제 성료

9월 20일, 박물관 야외 정원서
불교·전통문화 함께 즐기는 장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이 9월 20일 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가족문화축제 '범어사 야단법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불교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최장락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정종효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흥겨운 분위기를 이뤘다. 특히 주지 정오 스님이 어린이 참가자들과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체험존에서는 머그컵 제작, 에코백 만들기, 비즈 책갈피와 버튼 프레스 배지 제작 등이 진행됐다. 공연 무대에서는 소리꾼 나하은과 피리 연주자 김지윤이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도 해마다 야외 행사로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존중으로 살기 좋은 부산"

부산불교교육대학·화엄승가회
9월 20일, 르네시떼 야외광장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과 대한불교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는 9월 20일 사상 르네시떼 야외광장에서 '제8회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및 경로 孝 대잔치'를 개최했다.〈사진〉 두 단체는 매년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합동행사를 이어오며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봉행한 위령대재와 합동 캠페인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경로 孝 대잔치'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풍성한 음식과 문화 공연, 경품 추첨이 마련돼 흥을 더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남구불교, 추석맞이 자비 나눔

9월 24일, 쌀 3550kg 기부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9월 24일 남구청에 백미 3550kg을 기부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스님, 오은택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기탁된 쌀은 남구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신도님들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으니, 청장님께서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주신 쌀은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괘불제 掛佛齋
일시 :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13:00 ~ 17:00
장소: 보제루 앞
괘불재(국보 제301호 영산회 괘불)
보제루 앞마당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종장 인묵스님, 동환스님 외 4
*괘불재 : 불교에서 괘불을 이용해 야외에서 행하는 종교의례. 불교의례.
1일차 10월 10일 | 금요일
01 차일혁경무관 제67주기 추모재
■일시 : 2025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11시
■장소 : 각황전
02 국보301호 화엄사 괘불탱 이운 및 괘불재
■일시 :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13:00 ~ 17:00
■장소 : 보제루 앞
2일차 10월 11일 | 토요일
01 2025년 제5회 지리산대화엄사 요가대회
- 주제 : 숨쉬는 순간, 새로운 시작
■일시 : 2025년 10월 11일(토) 오전 9:00~12:30
■장소 : 보제루 앞
02 제21회 화엄음악제
- 바람이 물을 스칠 때
■일시 : 2025년 10월 11일(토), 오후 19:00~21:30
■장소 : 화엄사 각황전, 대웅전, 보제루 특설무대 앞
03 국가무형유산지정 사찰음식 시식회
■일시 : 2025년 10월 11일(토)
■장소 : 화엄원
3일차 10월 12일 | 일요일
01 제2회 지리산대화엄사 구례군 라인댄스 동아리 동호인 대회
■일시 : 2025년 10월 12일(일) 오전 8:30~10:30
■장소 : 보제루 앞
02 어머니의길 걷기대회
- 주제 : 새로운 변화 미래로 지속된다
■일시 : 2025년 10월 12일(일) 오전 10:30 ~ 13:00
■장소 : 보제루 앞 - 연기암 - 보제루 앞
화엄(寺)에서 화엄(經)으로 가는길'
'刻印, 꽃으로 새긴 붓의 노래' 대상작가 김이중 초대전-
■전시장소 : 화엄사 성보박물관
■전시일시 : 2025년 9월 16일 ~ 10월 26일